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

2016년 여름학기 개강안내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 개인의 자율성의 함양,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서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단계	프로그램 명	요일/시간	형식	강사
1쪽지 중고등부	제1쪽지 생각을 다듬는 독서·토론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7월 22일 개강 매주 금 (총4강), 저녁 7시~9시	읽기/강의/ 토론	추교준 (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2쪽지 고등반	제2쪽지 자유의 환상과 기만 따돌림을 통해 보는 자유의 문제	7월 19일 개강 매주 화 (총4강), 19:30~21:30	강의/토론	백송이 (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16년 7월 4일 ~ 22일
강의기간 : 2016년 7월 19일 ~ 8월 16일
수강료 : 쪽지 당 각 6만원
문의 : youthphilo@hanmail.net
010-9884-0166 (백송이)

신청방법

- 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youthphilo@hanmail.net로 보낸다.
- ② 아래 계좌에 수강료를 입금한다. 끝.
 - * 광주은행 074-107-427879
 - * 예금주 : 류도향 (청소년철학)

*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210호 강의실

* 다음 카페_ <http://cafe.daum.net/youthphilo> (전남대 철학교실 또는 청소년 철학교실 검색)

 twitter.com/youthphilo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생각을 다듬는 책임기, 삶을 가꾸는 글쓰기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읽기

강의자 : 추교준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강의 대상 : 중 · 고등학교 학생 또는 그 또래 청소년

강의 일자 : 2016년 7월 22일~8월 12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10호

교재 : 배경식 지음,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 각자 구입

준비물 : 필기도구, 본 수업 전용 노트, A4 사이즈 파일.

진행방식 : 책을 미리 읽은 뒤, 수업 시간에 토론하기, 토론 후 글쓰기.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서-토론-글쓰기의 몇 가지 규칙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요한 인문학적 물음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려 보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에 관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다듬어내며, 단단하게 다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정한 책을 읽고 난 뒤(독서), 자유롭게 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다음(토론), 마침내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활동(글쓰기)을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 참여할 학생들은 매번 자료를 소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다듬은 뒤, A4용지 1장 분량의 글로 써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에 관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절실하게 물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자료들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똑같은 인문학적 가치를 배우고 익히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만날 때, 즉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배울 때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 한 사람의 생각과 몸짓을 통해서 더욱 생생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자신의 삶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사람을 만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저는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책을 읽은 뒤, 자신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내려보는, ‘주체적 사유’를 익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 속에서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진지한 고민을 마주하며 자신의 삶을 조금씩 주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7월 22일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수업 진행 방식 소개 및 책 소개	강의+독서
2	7월 29일	“뺏속까지 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어느 조선 청년의 이야기”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독서-토론-글쓰기-상호 침사	토론, 글쓰기 +강의
3	8월 5일		
4	8월 12일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 환상과 기만

따돌림을 통해 보는 자유의 문제: 자유롭다는 믿음이 우리를 옳아매는 방식에 대하여

강의자 : 백송이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강의 대상 : 고등학생

강의 : 2016년 7월 19일~8월 16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10호

* 교재는 매 시간마다 배부됩니다.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바보게임에서는 말과 행동이 같아지면 집니다. 그러니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손으로는 세 손가락을 펴서 숫자 3을 알리면서도, 입으로는 3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웃고 놀자고 하는 게임이지만, 자세히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바보게임과 같은 현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바보 게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모두가 자기는 개성이 있고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주장들 하는데, 현실의 일상과 생각하는 각자의 미래는 모두가 비슷비슷합니다. 장래희망이 다양하다손 칩시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 하는 일은 똑같이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삶에서의 무의식적인 바보게임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것이 이 수업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흔히 학생이 미래를 걱정하는 방법은 공부, 정확히는 수능공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이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라는 말은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이 말에 버럭하며 반기를 드는 것은 쉬우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졸업장이나 자격증, 증명서를 보는 것이 슬프지만 사회의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잠재된 전체주의의 문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특히 전체주의가 어떻게 한 사람의 가능성을 그 자신이 스스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학교의 일상적인 문제인 '왕따'에서 어떻게 전체주의적 사고가 작동하는지, 이 안에서 어떻게 모두가 소외되고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자유롭다'는 일반적 자기인식의 기만적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7월 19일	바보게임 : 말과는 다른 말을 하는 행동	강의 소개
2	7월 26일	보이는 폭력과 보이지 않은 폭력 - 주관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쓰기 및 토론
3	8월 9일	일상 속 전체주의 : 자기를 비추는 왜곡된 거울들	영상감상 및 토론
4	8월 16일	왕따와 자기따돌림 - 누가 무엇을 어떻게 따돌리는가?	읽기 및 토론, 강의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1. 청소년 철학교실의 탄생 배경

청소년 철학교실은 2005년 여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철학교실>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빛고을 철학교실은 <교사를 위한 윤리학>과 <청소년 철학교실>, <기초 라틴어 강좌>, <기초 희랍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6년 전남대학교 철학과가 정부의 BK21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빛고을 철학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철학교실>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문강좌>로 세분화되었고, 현재 청소년 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주관으로 각 계절마다 (1년 4학기)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철학교실의 운영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청소년철학교실 외부강의 운영안내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와 협약 하에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출장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는 1꼭지 당 8회(주 1회, 2시간)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는 2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 의도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과 운영방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출장 강의는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약 2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외부 출강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youthphilo@hanmail.net).